

교
가

찬란한 옥과같이 갈리고 갈려
단단한 석와같이 닳리고 닳려
영도에 날고뛰는 용마보다도
현해를 구비치는 고래보다도
우리는 지혜롭고 더욱 날래세
새로운 우리나라 기념탑으로
크나큰 이름내는 경남중고교



발행·편집인: 박 동 열
발행처: 경남중고동창회동창회
부산광역시 중구 부평동 4가 52-3 골든 O/T 411호
Tel: (051)245-7551 ~ 3. FAX: 245-7550
홈페이지: www.kyungnam.or.kr
인쇄처: (주)중앙인쇄 (051)636-9477
재경동창회=서울 영등포구 여의도동 45-20 동복빌딩 504호
Tel: (02)783-0071 ~ 2. FAX: (02)783-0073

30개팀 '용호상박전' 예고 제34 - 32·45 - 44회 첫 격돌

“황금 용마기는 우리 품으로!”
제35회 동창회장기 기별야구대회(본부 주최·경야회 주관 2003 부산시리즈)가 10월5일(일요일) 오전 경남고 야구장에서 개막파르를 울리고 열린 4주간의 레이스에 들어갔다.
이날 오전 10시 거행된 입장식은 본부 임원, 권명미 경남고 교장 및 동문 교직원, 연합 A·B팀 및 지난해 우승팀 제 24회를 비롯한 28개 단일팀 임원·선수, 각 동기회장을 위시한 응원 동문 및 가족(자녀 포함), 모교 야구부 선수 등 5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국민의례 교가제창 우승기 반환 회장대회사 선수대표선서 등 순으로 진행됐다.
박동열 본부회장(8회·해운대성심병원장)은 대회사에서 “35개 성상(星霜)의 전통을 자랑하는



기별야구대회는 용마가족들의 열정어린 참여와 성원으로 펼쳐 오는 축제로, 다른 동창회마다 부러워한다”며 “앞으로 더욱 애정을 쏟아 즐겁고 유익한 한마당으로 화합과 결속을 확산해 나가는 잔치로 발전시켜 나가자”고 말했다.
권명미 교장은 환영사에서 “용마가족 여러분들이 널리 자랑하

는 배구의 향연을 위해 모교를 방문하신 데 대해 감사를 드린다”며 “모교 발전에 더욱 성원을 베풀어주시고 입장식으로부터 결승전에 이르기까지 즐거운 한마음잔치가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입장식에 이어 연합팀 동문들의 장타대회와 A·B팀(5회전 번외경기) 대전이 속행됐다.
이날 본부는 각 단일팀 선수·동문·가족들을 위해 주류와 음료수를, 연합팀 선수·동문들에게는 점심도시락을 각각 제공했고 입장선수들에게는 특별상을 수여했다.
왕중왕에 등극하기 위해 올해 대회도 묘기백출과 감동의 역전승, 흥미진진한 명승부, 뜨거운 응원전이 가을 그라운드를 수놓을 것이다.

▲대전방식 ▷전 게임 토너먼트
트 너다운제(콜드게임제 없음)
▷핸디-2~3회 1점·4~5회 2점...
▷대전횟수-연합팀 5회전(연장전 7회전)·단일팀 7회전(연장전 9회전)
▷선수교체 - 감독이 한 이닝 중 피쳐 플레이트에 두 번 나올 때와 감독이 한 게임 중 세 번 이상 타임을 걸 때
▷스스펜디드 게임처리 - 경기 중 일몰·악천후 시 선언. 다음 날 첫 경기 1시간 전 속행
▷기권패 처리 - 대전시간 15분 경과 시<각 팀 대전 1시간 전 대기 원칙>
▷경기용 공은 본부에서 제공하지만 기타 경기 용구는 자체 조달해야 함.
▲재학시절 선수 규제 ▷제 27~48회(장년·청년부)는 정규 선수출신 투수 기용 불가 ▷제 19~26회(중년부)는 재학시절 투수·포수 제외한 정규선수 배터리 기용 가능 ▷정규 선수 출신은 한 게임에 제 27~48회 경우 3명까지, 제 19~26회는 무제한 출전·교체 가능.

모교 이끌 새 사령탑 발탁

경남고 권명미·경남중 김철곤 교장(16회) 취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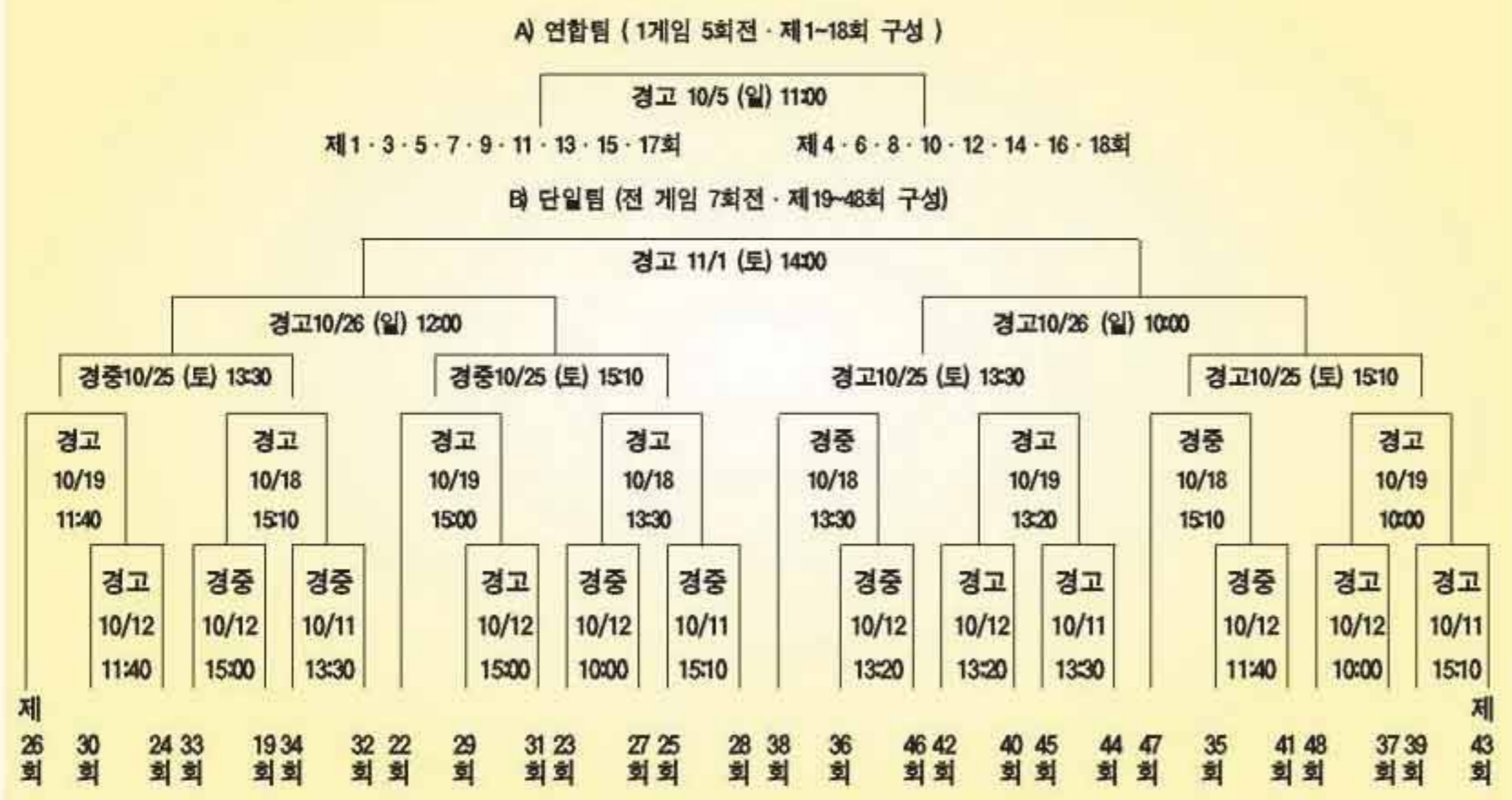
경남고 교감 이수현 선생님

모교를 활력 넘치게 이끌어 나갈 사령탑이 새로 발탁됐다. 최근 단행된 부산시교육청 인사에 따라 경남고 제18대 교장에 권명미(위), 경남중 제21대 교장에 김철곤 동문(16회·가운데)이 각각 취임했다. 경남고 교감은 이수현(아래) 부산시교육청 장학사가 발탁됐다. 김향운(13회) 전 경남고 교장과 강무기 전 경남중 교장은 각각 8월30일자로 정년퇴임했고, 신두진 전 경남고 교감은 재송중 교장으로 영진했다.
부산남고 재임 중 모교 사령탑을 맡은 권명미 교장은 경북사범대 과학교육과(지구과학 전공)와 부산대 대학원을 졸업했다. 부산에서 교편을 잡은 이래 동래고·부산고·낙동고·부산동여고를 거쳐 부산과학교육원 교육연구사·부산시교육청 장학사·장학관, 부산남고 교감 및 교장을 역임했다.
직선적이며 기획력과 추진력이 뛰어난 권 교장은 학력증진과 교육환경 개선이 시급함을 확인, 경남고를 자신의 모교 이상으로 육성하기 위해 “남은 임기를 경남고에서 마칠 각오”라고 밝혔다.



부산 학장여중 교장에서 경남중 교장으로 발탁, 금의환향한 김철곤 동문(16회)은 부산교원연수원 장학사·부산진여중 교감 등을 역임했다. 김 동문은 “모교에서 정년(3년)을 맞아 교육계를 떠나겠다”며 재임 중 모교의 분위기 쇄신과 학사 관리, 교육환경 개선 등을 위해 혼신의 노력을 쏟겠다”고 말했다.
경남고 이수현 신임 교감은 부산대 공대·한국방통대 전산과·한국교원대 대학원을 졸업했고, 낙동중·부산중앙고·부산사대부고·남산고·시교육청 중등과 장학사 등을 지냈다.
차분하고 온화한 성격의 이 교감은 기획력이 뛰어나고 인사정책에 일가견을 이뤘. 이번 인사에 즈음해 부산 시내 대부분의 교장들이 서로 교감으로 영입하려고 했다.

제35회 동창회장기 기별야구대회(2003부산시리즈) 대진표



제 12회 동기회 임원명단

상임고문
강수현 권연상 김철기 김광일
박보국 왕한균 문정수 권 익
정호중 김준철 이용언 장동석
김부환 안영규
회 장 남기용
부회장
김성식 김철종 김종성 엄태섭
정영철 탁혜정 김용호 하일민
총 무 천구성
감 사 정대식

이 사
김두식 김상희 김석용 김선일
김성찬 김용관 김용호 김우성
김인한 김제욱 김춘광 김현찬
김호구 박문기 박미원 박용운
박종정 박호민 백창식 서태상
안상직 안영배 오세정 오수복
우창하 유병용 유영철 이석립
이성대 이수영 이원우 이종석
이춘상 이태진 이환철 임정명
장상근 전영복 전판재 정동식
정외철 정인태 정현대 조병탁
주광조 최명진 최신일 추영제
하일민 한춘배 허은도 홍용하

강종신 과삼덕 박시삼 배기원
백요일 이무엽 이응숙 이정광
이종은 이현달 정진태 공 문
김장욱 김종원 박정윤 옥계환
장승재 최병훈 강창수 임창완
김용해 김종일 김익도 송세문
최병준
서울동기회
회 장 이규만 총 무 김영길
울산·경주동기회
회 장 최병준 총 무 김익도
대구·포항동기회 회장 김종원
경남동기회 회 장 김장욱

중·서·영도·동구지역
회 장 김준철 총 무 강창수
남구·연제·진구지역
회 장 김제욱 총 무 최명진
사하·강서·사상지역
회 장 김춘광 총 무 박용운
해운대·수영지역
회 장 김철종 총 무 우창하
동래·금정·기장지역
회 장 김부환 총 무 이춘상

<동기회 사무실>
부산 중구 중앙동 1가 21 대영빌딩
602호 ☎ 051-247-1958

'달리면 즐겁다. 달리면 인생이 달라진다.'

요즈음 서울이나 부산을 비롯, 전국 어디서나 달리기운동 붐이 '열풍'으로 일고 있다. 더구나 우리 동창사회에서도 용마 가족들이 끼리끼리 모여 달리를 즐긴다. 서울의 재경동창회 소속 동기회들이나 부산의 본부동창회 소속 여러 동기회들이 마라톤회를 결성, 달리기운동을 생활화하고 있다. 대부분 공식 마라톤대회가 열리면 5km·10km·하프코스·풀코스 등에 도전한다는 소식들이다.

걷기보다 쉽다는 달리는 연령과 성별에 따라 다소 차이가 있지만 기법을 익히고 계획대로 연습한다면 1~2개월 후에는 누구나 5~10km는 거뜬히 달릴 수 있다.

누구나 선입관을 버리고 반바지에 운동화차림으로 처음에는 걷기부터 시작하여 조금씩 속도를 높이다가 천천히 뛰고, 조금씩 거리와 시간을 늘려 나가면 누구나 장거리도 달릴 수 있다. 그리고 건강을 되찾고 활기찬 생활을 영위할 수 있다.

흔히 건강달리기(마라톤)를 선진국형 스포츠라고 한다. 미국이나 일본의 사례에서 보듯이 국민소득이 1만 달러에 근접하게 되면 국민 개개인이 본인의 건강

시 평

이중식

제34회·재경동창회 총무



달리기 생활화와 역량 결집

에 대한 관심이 고조되면서 가장 쉽게 접할 수 있는 달리기운동을 하게 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첫째, 비만은 까다로운 식사조절이 없더라도 규칙적인 장거리 달리기만으로도 개선되거나 치유가 가능하며, 당뇨병과 고혈압도 개선되어 투약량을 줄이거나 끊을 수도 있다.

둘째, 규칙적인 관절의 움직임으로 연령에 따른 관절의 변화를 억제시킬 수 있을 뿐만 아니라, 골다공증을 예방하거

나 치료할 수 있다.

셋째, 뇌로 가는 혈류량을 증가시킴으로써 기억력이나 지능을 좋게 하고, 불면증 불안증 우울증을 개선시킨다.

넷째, 테스트스테론이라는 남성호르몬의 분비가 증가되어 성욕이나 성적능력이 향상된다. 전체적인 체력은 10년, 지구력이나 민첩성과 같은 부분적인 체력 요소들은 25~30년, 평균수명은 2~5년 젊어진다.

다섯째, 대장암 위암 췌장암 전립선암 유방암 난소암의 유병률이 상당히 낮아진다는 사실이 증명되고 있다.

여섯째, 심혈관계가 활성화되어 심근경색증 협심증 뇌졸중 등의 발생을 낮출 수 있다.

달리를 생활화하다보면 달리면서 즐거운 기분을 느끼게 되고 일종의 중독현상에 빠진다. 이를 의학적으로는 '긍정적인 중독'이라고 한다. 즉 달리는 순간에 느낄 수 있는 즐거운 기분을 경험하고 나면 그 기분을 계속 느끼기 위해 계속적으로 달리게 된다는 것이다.

자기와의 '고독한 싸움'인 달리를 시작하여 어느 정도의 수준에 이르게 되면 상당한 시간을 달릴 수 있게 된다. 이쯤에 이르면 마음의 안정을 찾게 되고 잡다한 일상사를 잊게 되며, 자신과의 대화시간을 갖게 된다. 그리고 주변 사물들이 긍정적으로 보이고, 성취감과 함께 자신에 대한 긍정적 사고가 늘게 되며, 겸손을 배우는 기회를 얻게 된다.

최근 주위에서는 가족이 함께 달리는 정겨운 모습을 자주 보게 된다. 이는 가족의 건강을 지키고 대화의 시간을 늘리며 가족 간의 화합과 결속을 촉진하는 바로미터인 것이다.

모든 운동이 그러하듯 달리기운동은 육체적인 건강을 가져다줄 뿐만 아니라 그 어떤 운동보다도 정신적인 부문에 영향을 미친다.

용마가족 여러분, 달리를 생활화하여 자신의 건강을 항상 유지하고 이 저력을 동창회 발전의 원동력으로 직결시킵시다.



초복날 토종 황구 - 폭탄주 절묘한 랑데부 쌍석회 정력보강 바둑대회

불벌더위 초복날에 토종 황구와 폭탄주가 절묘하게 만났다. 지난 7월16일 오전 부산 금정구 오륜대 회동수원지 근교 상항버섯 농장인 남이농원(김병기 고문 운영).

제11회 바둑모임 쌍석회 주최 올해 두 번째 바둑대회 겸 여름수련회가 열려 이 명 동기회장과 신대수 쌍석회장을 비롯한 20여 명이 두 페로 나눠 한쪽은 수담(手談)을 즐겼고 다른 쪽은 보양탕과 폭탄주를 곁들여 정력보강에 열을 올렸다(사진).

김원형 총무의 사회로 진행된 바둑대회에서 △A조는 이상명·김원형 △B조는 박용관·박옥식 △C조는 신윤업·이명 동문이 각각 우승·준우승을 차지했다.

우승 이상명 박용관 신윤업
18번 노래자랑·출판 덩더쿵
어깨동무한 채 교가 합창 피날레

일행은 신 회장이 특찬한 토종 황구 한 마리로 조리한 수육과 탕으로 보신을 했고 폭탄주 위력으로 노래자랑이 흥을 돋웠다.

이 회장이 18번인 '낙엽 따라가버린 사랑'을 불러 분위기를 잡자 목청 좋은 친구들이 잇따라 열창을 엮어나갔다. 이내 덩더쿵 출판이 곁들여지자 너나 할 것 없이 어깨동무를 하고 46

년 전 구덕원두를 포효했던 그 기상으로 응원가와 교가를 목이 터져라 합창했다. 아름다운 우정의 꽃이 활짝 피어난 순간이었다. 기념촬영을 하고 저마다 기념품을 받아든 친구들은 다음 대회일을 기약하며 석별의 정을 나눴다.



자매결연 맺은 하점마을 방문기 신 병 식

제24회동기회 경부 용마가족들이 지리산 기슭 한 마을에서 첫 합동수련회를 개최, 동창회 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역량 결집의 의지를 불태웠고 주민들의 일거리를 돕거나 생활자문을 하는 등 일거양득의 뜻깊은 행사를 치렀다.

지난 7월 18~20일 경남 함양군 마천면

제7회재경회 졸업50돌 잔치 '신바람'

태백~동해~안동권 1박2일 관광여행

"우리는 살아 생전 마지막이 될지도 모를 홈 커밍 데이 맞이 관광여행을 떠났다!"

제7회재경동기회 용마들은 지난 4월24~25일 1박2일 일정으로 졸업50주년기념 태백권~동해권~안동권 관광여행을 즐겼다(동기회 기금에서 각자에게 20만원씩 지원).

이번 잔치는 배중현 회장을 비롯해 광운대 총장인 박영식 동문, 외교관 출신인 박동순 남홍우 이창범 동문(각자 대사 역임), 멀리 원주에서 참석해 20만원의 특찬금까지 쾌척한 김장영 동문 등 모두 20명이 참석했다.

배중현 회장의 각별한 안내에 따라 첫날은 오대산의 오색자연한 월정사와 정동진을, 삼척의 환선동굴, 기암절벽으로 빛어진 촛대바위 등을 관광했다.

배가 출출해진 저녁때가 되자 발길을 경북 영덕의 강구포구로 옮겨 말로만 듣던 '영덕대게'를 실컷 먹었고, 백암온천에 여장을 풀었으며, 곧 노래방에서 노래와



졸업50주년 기념 1박2일 관광여행에 나선 제7회재경회 동문들이 오대산 기슭 월정사 대웅전 앞에서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제24회동기회 첫경부합동 수련회 지리산 기슭서

서울·부산 동문들이 처음으로 합동수련회가 열린 지리산 기슭 하점마을 자매결연식에서 교가를 열창하고 있다.

문(SBS 해설위원)이 2박3일 행사를 간주려 소개하면 다음과 같다.

▷첫날(18일) : 부산의 선발대 20명이 줄기찬 빗속을 뚫고 하점부락의 벽소령모텔에 도착, 내일부터의 행사를 위해 치밀한 준비에 들어갔다.

▷둘째날(19일) : 오후 2~5시 사이 하점부락 계곡. 서울의 변정규 회장과 국회의원 김무성 동문 등 25명, 부산의 태창업 회장을 비롯한 45명, 울산·문경의 4명 등 모두 74명이 정담 넘치는 숲길을 나누며 회포를 풀었다.

오후 7시 마을 계곡 옆 술밭. 용마가족과 마을 주민 20여명 등 1백여명이 10여개의 평상에 나눠 앉아 상견례 및 선물교찬식을 치렀다. 닭백숙과 산채음식 등으로 차려진 토속음식은 푸짐했다.

태창업 회장은 마을이장에게 각종 의약품과 운동화 40켤레, 마을발전기금 40만원을 전달했고, 마을 측에서는 지리산 흑돼지 한 마리와 산채 두 상자를 답례품으로

선물했다. 박수가 잇따라 쏟아졌다.

밤 8시쯤 '화합의 밤' 개막. 대학시절 밴드 활동을 했던 오성환 동문이 전자기타로 반주를 맡은 가운데 노래자랑이 깊은 산골짜기를 메아리쳤다.

그 사이 흑돼지 바베큐 파티도 곁들여졌는데 남녀노소 체면불구 먼저 많이 먹으려고 승강이(?)가 벌어졌다. 바베큐 파티가 끝날 무렵 장대비가 쏟아져 숙소 등으로 피신하는 촌극을 빚었다.

비주류파와 그 가족들 20여명은 잠자리에 들었고 주류파 중 20여명은 숙소 지하 노래방에서, 다른 30여명은 계곡 옆 정자에 모여 술과 노래로 여름밤을 달랠다.

▷셋째날(20일) : 아침 일찍 20여명은 서울과 부산으로 먼저 떠났고 남은 사람들 중 24명은 오전에 염천강 래프팅을 했다. 50여명이 한자리에서 기념촬영, 새로운 추억의 징표로 삼았다.

오후 2시 벽소령모텔을 출발한 일행은 김무성 의원의 안내로 생초 10부근 음식점에서 메기 매운탕과 은어회로 해단식을 치르고 각자 귀가길에 올랐다.

봉황대기 5년만에 쟁취... "우승 좀 해봐라" 엄원 풀어



제33회 봉황대기 전국대회에서 우승한 경남고 선수들과 박동열 본부회장(뒷줄 오른쪽 세 번째) 등 동문들이 우승기를 앞세우고 포즈를 취하고 있다.

전국 용마가족 감격·환호

모교 경남고가 5년 만에 봉황대기를 쟁취, 통산 두 번째 정상에 오르며 '야구명문'의 위상을 재확인시켰다. 이 같은 쾌거는 국내외 용마가족들은 물론 경남고를 사랑하는 전국 야구메니아들의 가슴마다 감격이 용솨음치게 했다.

전황 모교는 지난 8월26일 서울 동대문야구장에서 열린 제33회 봉황대기 전국고교야구대회(한국일보 일간스포츠 대한야구협회 공동주최) 결승전에서 선발투수 김상록(2년)이 완벽투를 뿌림으로써 지난해 준우승팀인 강호 중앙고를 6-1로 물리치고 패권을 차지했다.

응원석 열광이 들불처럼 번져나간 응원석은 환성의 물결이었다. 대형버스 16대에 나눠타고 온 재학생 700여명과 김향운 교장(13회)을 비롯한 교직원, 학부모, 본부동창회 박동열(8회·해운대성심병원장) 회장을 위시한 임원다수·이길상(6회·전 경남고 야구부장)·김병수 총무부장(22회), 재경동창회 김경회 고문(9회·용마공영 대표이사)·신준호 회장(14회·롯데햄·우유 회장)·박호문 사무국장(15회)·이중식 총무(34회), 제33회 동문들을 비롯한 부산·서울 등지에서 모여든 용마가족 1,000여명 등 무려 1,700여명이 한데 어울려 우승을 기원하며 환호와 박수와 감동을 연출했다.

결승상보 결승전에 나선 모교는 재학생들과 수많은 용마가족들의 열광하는 응원에

힘입어 초반부터 기선을 잡았다. 모교의 돌풍은 거셌다. 1회말 톱타자 김동현의 중전안타와 남성규의 볼넷으로 1사 1, 3루에서 김동석의 2루땅볼로 승세를 타는 선취점을 올렸다.

돌풍은 이어졌다. 김창영의 몸에 맞는 볼로 계속된 2사 1, 2루에서 투수 김상록이 2타점 2루타를 터뜨려 일거에 3-0으로 앞섰고 이창석의 좌중간 2루타로 1점을 보태 4-0으로 기선을 제압했다.

돌풍은 충전했다. 승세의 기를 굳힌 모교는 4회초 1점을 내준 후 말공에서 2점을 추가, 중앙고의 반격을 무산시키고 우승의 감격을 누렸다.

△김상록(2년) 최우수선수상(MVP)·우수투수상·수훈상 △황준호(3년) 우수투수상 △김동현(3년)은 최다도루상(6개) △이중운 감독(39회) 감독상 △박도환 야구부장 지도상 △김향운 교장(13회) 공로상.

지옥속엔 견뎌낸 선수들 너무 자랑스러워

기적 낳은 이종운 감독

"꿈에 그리던 봉황대기를 풀어 안으니 김개무랑과 함께 만감이 교차합니다. 기적 같습니다. 힘든 훈련을 피하지 않고 견뎌낸 선수들이 동대문야구장에서 기량을 발휘한 것이 무척 자랑스럽습니다."

이종운 감독(39회)은 우승 소감을 밝히면서 선수들을 한껏 칭찬했다. 그는 사령탑을 맡은 지 1년도 안돼 최악체임을 봉황대기 정상으로 끌어올리는 기적을 낳았다.

1992년 롯데 우승의 주역으로 한시즌 최다 3루타(14개) 기록의 장본인이었던 이 감독은 롯데 코치생활을 끝으로 지난해 11월 모교에 부임했다.

"당시 선수들은 패배주위에 빠져 눈빛이 흐려있었습니다. 이를 어떻게 조련해야 할 것인가가 저의 가장 큰 고민이었습니다."

투수 2명을 포함, 주축 선수들이 신일고와 한서고로 4명이나 전학가는 후유증에



시달리며 지역에선조차 통과하지 못해 올 시즌 서울에서 열린 메이저대회 본선무대에는 발도 붙여보지 못하는 수모(?)를 당하지 않을 수 없었다.

그래서 이 감독은 스스로 '독종'이 되기로 결심, 지옥훈련의 프로그램을 하나하나 펼쳐 나갔다. 낙오되는 선수에게는 미련을 두지 않기로 했다. 혹독한 야간훈련과 함께 정신훈련에도 채찍질을 가했다. 왜냐면 선수들이 프로처럼 맛을 부리는가 하며 투타에서도 한결같이 집중력이 떨어졌고 '근성야구'가 너무 부족했기 때문.

"1회전에서 천안 복일고를 물리치면서 '할 수 있다'는 자신감이 불붙었습니다. 신뢰와 후원을 아끼지 않은 교직원·재학생·학부모·동문 여러분에게 감사드립니다." 이 감독의 끝맺는 말이 떨리고 있었다.

"봉황대기 성원에 감사합니다"

경남고가 봉황대기를 쟁취하기까지 용마가족들의 들불 같은 지원이 크게 기여했다. 본부동창회와 재경동창회의 유기적인 뒷바라지, 박동열(8회) 본부회장과 신준호(14회) 재경회장을 비롯한 수많은 동문들의 물심양면의 성원이 선수들을 분발하게 했다. 특히 이종운 감독이 소속된 제39회(회장 안영준)는 대회를 전후해 선수강훈과 선수특식 등에 350여만원을 지원했고, 제33회 삼솔회(회장 백수현)는 선수특식 제공·선수야구백 30개 선물 등으로 사기를 진작시켰다.

박동열 본부회장과 신준호 재경회장은 지원한 동문들에게 감사의 뜻을 전했다. 성원한 동문들은 다음과 같다.

- ▷본부동창회 = 출전지원금·지도자 격려금·우승 환영회 등 2천100여만원 ▷재경동창회=100만원 ▷정인조(5회·합신 대표)=100만원 ▷박종구(5회·삼구 회장)=300만원 ▷이길상(6회·전 경남고 야구부장)=30만원 ▷정행권(9회·본부 수석부회장)=30만원 ▷제12회재경회=50만원 ▷이규만(12회·KML 회장)=100만원 ▷윤형교(12회·고려피엔텍 회장)=30만원 ▷신준호(14회·재경회장)=300만원·롯데 우유류 30만원어치 ▷본부 경총회=20만원 ▷한수길(14회·롯데제과 대표)=50만원
- ▷롯데 과자류 160만원어치 ▷제15회=100만원 ▷제15회재경회=50만원 ▷천신일(15회·세중 회장)=100만원 ▷홍용찬(16회·우성해운 대표)=50만원 ▷김용길(17회·동양장식 대표)=30만원 ▷이상률(31회·롯데칠성음료 팀장)=20만원 상당 롯데 생수류 ▷제33회 삼솔회=선수특식·야구백 30개 제공 ▷제34회재경회=30만원 ▷제35회재경회=294,000원 ▷제35회 창원회=100만원 ▷제39회=320만원(전 집행액 중 잔액 289,080 별도) ▷제27·36~40·42·45회재경회=341만원 ▷개인=85만원.

스타되기 시간 문제... '왕별'로 떠올라

우승견인차 김상록 투수

"하늘을 날아오르는 듯한 기분입니다." 모교의 봉황대기를 안겨주는 데 크게 기여한 에이스 김상록(2년) 군은 감격의 순간을 이렇게 표현했다.

'스타탄생'을 예고한 초고교급 투수로 떠오른 김 군은 이번 봉황대기 전국대회에서 모교의 6승 중 4승을 올린 우승견인차. 6경기 26과 2/3이닝 동안 5자책을 기록, 방어율 1.69의 빼어난 성적을 거뒀다.

결승전에서 9이닝 동안 완투하며 안타 8개와 1점만 내주고 삼진 9개를 잡아내는 위력 넘치는 투구를 선보였다. 특히 1회 2사 1, 2루에서 2타점 2루타를 터뜨려 4-0으로 승기를 잡게 했다.

김 군은 천안 복일고와의 1회전서 4억 2,000만원의 대어 김창훈(한화 1차 지명)과 선발 맞대결, 9회까지 3-3으로 겨룬 후 연장12회에서 극적인 역전승을 이끌며 결승 진출의 교두보를 구축했다. 이로써 5차



레 우승을 노리던 복일고를 격침시키는 파란을 일으켰고, 광주일고와의 16강전서는 완투승을 했다.

두 달 전 3루수에서 투수로 발탁된 김 군은 이종운 감독이 캐낸 '진흙 속의 보석'이었다. 177cm·67kg의 가냘픈 체구인 김 군의 주무기는 낙차 큰 슬라이더에다 변화구와 체인지업. 직구 최고구속은 137km인데 3학년때 140km대 후반으로 끌어올리기 위해 하루 200개의 팔굽혀펴기를 실시하고 있다.

"구석구석 찢러넣는 코너워크는 최고"라는 게 프로스카우트들의 공통된 평가이고, 한때 김 군을 지도한 바 있는 김성근 전 LG감독은 "머리가 참 좋은 선수이고, 피가 넘친다"고 김 군을 칭찬했다.

"졸업하면 롯데나 LG, 두산 등 프로에 진출, 현대의 조용준과 같은 뛰어난 투수가 되겠다"고 미래를 밝혔다.

제 19회 동기기회 임원명단

고문

강영범 권철현 김봉호 김윤기 김진국 남진현 박동화 석무관
성낙출 이명환 이병호 이성달 이용만 이용흙 이창흙 이춘만
정기영 정학영 진영준 허홍욱

회장 김경재 세영선박공업(주) 대표 418-4541~3

부회장 김순호 (주)삼희스포츠 대표 205-5852~3
김철호 동래 백병원 원장 255-4790
이기주 부산은행 이사 504-3741
황성진 황성진법률사무소 대표 506-8330
황태원 (주)기명 대표 756-1257

이사

공기주 김부환 김석구 김영묵 노덕현 박영선 박재걸 박종화
배영구 백홍기 성환진 오경중 오재호 유원상 이강용 이병구
이부성 이장희 이재길 이정길 이종명 이창도 이창현 임영수
임태석 장홍의 최광우 최영식 한원태 한중수

감사

신윤철 문관진

총무

박성규

인도네시아에도 용마기상 '하늘을 찌를 듯이...'

동문 22명 뚫뚫 뭉쳐 월례회·골프대회·가족돕기 등 전개

인도네시아에서도 용마의 자긍심이 충천하고 역량이 과시되고 있다. 이곳 22명의 용마들은 정례회를 비롯해 골프대회, 새 가족 환영회, 석별의 정을 나누는 환송회 등 갖가지 행사를 펴 화합과 결속을 촉진하고 있다. 특히 지역회는 동문돕기운동도 적극 전개해 잔잔한 감동을 불러 일으키기도 한다.



"내가 제일 잘 생겼죠" 인도네시아 용마가족들이 월례회에서 반갑게 만나 포즈를 취하고 있다.

월례회 인도네시아 지역 동창회는 박광용 동문(15회) 자택에서 지난 9월21일 오후 7시(현지시간) 윤재권 회장(20회) 부부를 비롯, 가족 동반 20여명이 모여 우정을 나눴다. 이곳 월례회는 매월 한 차례 정기적으로 열리지만 동문의 영진·이임을 위한 회식이나 길흉사에 대한 뜻을 모을 일이 있을 때는 임시회를 연다.

신용도 총무(27회)의 사회로 진행된 이날 모임은 앞서 오후 1시 폰독 케이브 GCC에서 티업한 제72차 골프대회 결과 발표와 길흉사에 대한 뜻을 모을 일이 있을 때는 임시회를 연다.

해 '인도네시아에서 활약하는 동문들은 20여명 안팎이지만 '소수정예'라는 자부심으로 역량을 결집해 모교와 동창회의 명예를 선양해 나가자"고 말했다.

한편 신용도 총무는 경과보고를 통해 △지난 8월22일 오후 7시 기소야에서 열린 장길성 동문(17회)이 스폰서한 부동반 초청 단합회 △같은 달 17일 오후 7시 초당에서 열린 8월 정례회 △같은 달 6일 오후 7시 초당에서 열린

임시회에서 투병 중인 동문아가 돕기 모금 결과 △7~9월 골프대회 성적과 숨은 이야기 공개 등 여러 관심사를 보고 했다.

골프대회 지난 8월17일 오후 1시 GCC에서 티업한 제72차 골프대회는 윤재권 회장(20회)을 비롯, 차용환·송상현(이상 23회) 김석 임종근(이상 25회) 신용도 총무(27회) 손홍익 동문(30회) 등 7명이 참석했다. 입상자는 다음과 같다.

△우승·롱기스트=윤재권 △퍼스트 러너·메달리스트=차용환 △리어리스트=송상현 △부비=임종근. 한편 앞서 지난 7월20일 오후 케다론 GCC에서 열린 제71차 대회에서는 윤재권(20회) 김석 이석호 임종근(이상 25회) 신용도(27회) 윤청룡 김성민(이상 29회) 손홍익 동문(30회)과 부산에서 출장은 장역택 동문(32회) 등 모두 9명이 참석했다.

이날 우승과 롱기스트는 손홍익, 퍼스트 러너와 메달리스트는 윤청룡, 리어리스트는 신용도 동문이 각각 차지했다.

동문돕기 이곳 동문들은 김재훈 동문(41회)의 16개월 된 둘째 아들이 복부의 악성종양인 '신경모세포증'으로 부산대병원에서 치료를 받고 있다는 소식을 듣고 성금모의기운동을 펴 좋은 성과를 거두었다.

이 운동은 지난 8월 6일 임시회의 결의에 따라 추진해 왔는데, 송상현 박광용 차용환 동문이 각각 200달러를, 이석호 윤청룡 이상호 신용도 김준근 동문이 각각 100달러를, 손홍익 동문이 달러를 쾌척함에 따라 모두 1,258달러를 모아 김동문에게 전달했다.

김뇌명(15회) 기아차 부회장 영진



김뇌명 동문(15회·사진)은 기아차 사장 재임 중 최근 단행한 현대차 그룹의 인사에서 이 회사 부회장으로 영진했다.

서울대 상대를 졸업하고 현대자동차에 입사, 해외담당 영업부에서 잔뼈가 굵었고 회장 비서실과 기획조정실을 두루 거치면서 상무 및 전무이사, 해외담당 부사장 등을 역임했다.

영어회화가 특출한 김 동문은 외국 바이어들을 거의 상대해 왔기 때문에 해외에 이름이 더 알려져 있다.

강영주(16회) 주가지수선물 부산 이관 약속



강영주 동문(16회·증권거래소 이사장·사진)은 지난 8월28일 부산에서 기자간담회를 갖고 "내년 1월부터 주가지수선물(코스피 200)과 옵션이 한국선물거래소에서 거래될 수 있도록 연말까지 차질없이 이관하겠다"고 말했다.

강 동문은 이와 함께 △선물거래소 안에 증권거래소 직원 파견(30명)·단말기 및 통신망 등 설치 △통합거래소 경영지원본부·청산담당기구의 부산 이관 등을 밝혔다.

제31회 '해남수회' 깜찍소 16명 가는정 오는정 나뉨

제31회동기회 해운대·남구·수영구 거주 동문들의 모임인 '해남수회' 정례회가 지난 7월25일 오후 7시 해운대 신시가지 신창국밥집에서 열렸다.

김호성 회장이 주재한 모임에는 모두 16명(김호성 김광현 박세환 김시현 한문성 송재용 오민일 공중열 박종규 최동식 남기태 김중준 서태교 백 현 박무철 김옥운)이 참석, 서울로 전근가는 송재용 동문 환영회·해운대 신도시의 삼환짜꾸류 현장소장으로 부임한 백 현 동문 환영회의 뜻을 한껏 살렸다.

한편 김광현 총무는 이날 받은 회비 중 식대와 생맥주집 주대를 지출하고 남은 돈(18만원)을 어떻게 잘 쓸까를 궁리하고 있다.

우애 넘친 '술범벅 땀범벅'

제29회 29베이스캠프 금원산~기백산 등정기 이충원

녹음 짙은 지난 6월 7~8일. 경남 거창 근교 금원산~기백산에서 펼쳐진 제29회 동기회 29베이스캠프의 제25회 정기산행 대회는 산우회 창립 이래 첫 1박2일 일정이라 다들 흥분(?)했음인지 시종 우애 넘치는 '술범벅땀범벅' 행사였다. 이틀간의 모습을 지상중계한다.

첫날-오후6시50분 부산을 출발한 김정규 산우회장 등 15명은 물 좋고 경치 좋은 금원산~기백산 도전을 위해 경남 거창으로 달린다. 차 안은 앞서 동래시장에서 낚시를 거니하게 마신 LK 등의 주사(?)가 폭소를 연신 토해내게 한다.

일행은 밤 10시쯤 임광열 동문의 본가에 들어가 부모님께 큰절을 올리고 본격적으로 먹고 마시는데 혼을 뺐진다. 동심으로 돌아간 단합회는 다음날 새벽 3시까지 이어진다.

둘째날 - 오전 6시 기상. 다들 작취미싱(昨辭未醒)꼬로 광열이 모친과 부인의 합작품인 쇠고기국으로 해장을 한다. 이충

원은 국을 세 그릇이나 단숨에 먹어치워 신기록을 세운다. 오전 8시30분 유아청폭포 입구. 숙이 쓰리고 다리가 후들거리는 것을 참고 산행에 들어선다. 10분쯤 지나 폭포에 닿는다. 냉기가 휩쓴다. 잠시 후 연래가 제일 먼저 배낭을 베고 뺐는다.

앞서가던 광우 전영 영훈이가 보이지 않는다.

충원이가 산악마라톤을 시작하고... 오른쪽 능선길을 잡고 가파른 길을 차오른다. 1015봉을 오른 후 터진 무전기에서 원래의 '원래복귀' 목소리가 흐른다. 능선을 오르고 너털지대를 헤쳐 나오다보니 금원산 정상이다. 다들 지쳐있다. 오이 한 개씩과 사탕 한 알씩을 배급받아 기백산으로 발길을 옮긴다.

능선길 5km. 그늘이 많아 산행에는 좋으나 좀 지겹다. 1시간 30분을 헉헉거린 끝에 장쾌한 기백산 정상에 오른다. 멀리 덕유산이 손짓을 한다. 정상에서 좀 내려와 점심식사 준비를 한다. "이를 어찌



경남 거창 근교 기백산 정상대 오른 제29회 산사나이들이 호연지기를 펴고 있다.

나..." 비명(?)에 가까운 절망의 의미다. 산의 적막을 깨뜨려 놓는다.

리면이 낙오한 연래 배낭에 있다는 사실을 모두들 깜박 잊은 것. 할 수 없이 기천이가 가지고 온 런천티트 김치 통마늘 매운고추 등을 썰어 넣고 김치찌개를 만들어 광열이 부인이 챙겨준 밥을 나눠 먹는다. 거기에는 빵과 과일을 곁들이니 허기가 가시는 듯하다. 모두들 광열이 모친

과 부인에게 감사한다. "밥을 챙겨주지 않았으면 어찌 됐겠노..." 오후 2시5분 하산 길에 오른다. 계곡길은 가파르기 짝이 없다. 1시간 25분 걸려 임도에 이른다. 10km 넘는 길이다. 광열이 친구가 운영하는 송어횃집에서 소주와 송어회를 즐기며 강평회를 연다. 말이 점점 많아지고 좀 잡스러워진다.

제 21회 동기회 임원명단

본부동창회 부회장

최민석 최재권

본부동창회 이 사

강수경 송원경 오거돈 전기환 정익주

고 문 (역대회장)

박상기 이문수 이재홍 최수명
안채식 강창수 이재화 이영훈
김병수 장 호 이승현 성윤수
임경범 정영천 강수경 전기환

지역고문

최민석(마산창원) 박일송(울산)

회 장 오거돈

수석부회장 강수경

부 회 장 서덕수 이재화

협의부회장

강창수 김한규 송재영 안채식
윤승근 이강남 이재호 전우성
정영천 최수명

이 사

강민우 강순석 강영도 공기화
권영순 권용호 권재진 김성환
김기현 김동우 김부곤 김길서
김원달 김익수 김유건 김준모
김지호 김현일 김황세 김창민
민한식 박명문 박봉현 박병진
박현두 박순양 박자민 박재선

박찬영 배영일 배 일 변성인

박성렬 신금봉 성경근 손원조
송재식 여환부 오성모 오의희
옥영철 우종득 유희원 윤상철
이세형 이익규 이인백 이일상
이재택 이종하 이정규 이혁
전광수 정의주 정길영 정동일
조병규 조화래 조호제 정대원
진영춘 채경석 최금구 최낙환
최정림 최재봉 최현두 최희춘
한수민 한인환 한진태 허영도
황동규 황영실

감 사 임경범 변창섭

총 무 조현영 권오균

서울동기회

회장 박상기 총무 홍순길
마창동기회 회장 여환부 총무 김현기
울산동기회 회장 신성도 총무 박춘성

이일산우회 회장 정영천(등산)

기우회 회장 민한식(바둑)
조우회 회장 배 일(뉴스)
당구회 회장 정호명(당구)
신우회 회장 한인환(기독교)
천수회 회장 송재영(불교)
반석회 회장 강수경(천주교)

어린이대공원-석불사 산행 제12회 용마원투산우회

용마원투산우회(제12회동기회)는 지난 8월 24일 어린이대공원 석불사 코스에서 산행대회를 열었다. 남기용 회장이 주재 한 이날 산행에는 모두 13명이 참석. 건강을 다지고 단합회를 통해 우정 짙은 술잔을 나누었다. 남기용 회장은 석불사 아래 음식점에서 열린 점심식사를 겸한 단합회에서 "회원들을 늘려 나가는 데 각자 노력하자"고 말했다.

권순찬 은사 별세



1950년대 모교에서 후학을 지도한 권순찬 은사(향년 79세·사진)는 지난 9월 5일 오전 노환으로 별세했다.

경남 산청 출생인 고인은 경성 사범대와 서울대 사범대를 졸업했고 동아대에서 행정학박사학위를 받았다. 문교부 장학관·서울공고와 성동기계공고 교장·문교부 교육행정실장·한국방송통신대학장·연암공전대 학장·남명학연구회 이사장 등을 역임했다. 새마을 동백장과 국민훈장 모란장을 받은 고인의 유족은 부인 최재연씨와 종근(아리에스 대표), 은영씨(동명중공업 대표이사) 등 2남2녀가 있다.

문덕만(12회) 전 재경부회장 별세

문덕만 동문(13회·전 정풍물산 회장·사진)은 지난 9월 17일 오전 지병으로 경희의료원에서 별세했다. 모교 야구부 출신으로 서울에서 활약하고 있는 동문들의 친목단체인 경구회 회장을 역임한 고인은 재학시절 야구선수로 뛰면서도 열심히 공부해 서울대 상대에 합격했다. 고인은 재경동기회장·재경동창회 부회장 등을 맡아 동문들이 하나로 뭉치는 데 기여했고, 기별야구대회에도 남다른 열정을 쏟았으며, 동창회의 크고 작은 행사에 앞장서서 헌신했다.

신우회 나눔의 밤상황

부산지역 기독교동문 모임... 울 들어 5번째

'한 동문 돌아보고 한 동문 구원하자!' 용마신우회(부산지역 기독교동문 모임)가 지난 9월 6일 오후 5시 부산 연제구 거제1동 리틀캠퍼스에서 '나눔의 밤'을 열고 기독교동문 간 유대강화와 비교인 용마가족을 대상으로 전도활동을 전개할 것을 다짐했다. 이요셉 회장(15회·동서교회 장로)의 주재로 열린 이날 모임

은 문상식 동문(36회·사랑하는 교회 목사)이 사회를 맡아 찬양·문취영(24회) 부부 간증·초대 가수 찬양('기다리는 사랑'·박혜영 자매)·말씀(이재철 목사·21회)·증보기도·영접 및 축복 기도(이재철 목사)·소개 및 교제 등으로 진행됐다. 특히 이요셉 회장은 인사말을 통해 "나눔의 밤이 축복의 밤·죽어가는 생명을 살리는 밤·은

혜의 밤이 되도록 수고하고 기도하자"며 "이를 위해 평소 물심양면으로 성원하고 우리 모임이 더욱 활성화되도록 자문과 보살핌을 아끼지 않는 동문 여러분들에게 집행부의 이름으로 감사한다"고 말했다. 현재 부산의 용마신우회 소속 회원은 제1회(권오현·전 부산일보 사장)부터 제47회까지 350여 명으로 추산되고 있다. 이 가운데 기독교동문이 가장 많은 동기회는 제21회(45명)이고 다음으로 제16회(28명), 제25회(26명) 순이다.

출범 1주년기념 스포츠 27마라톤회, 성지곡수원지서

날로 활성화되고 있는 제27회동기회 27마라톤회 출범 1주년기념 스포츠가 지난 8월 23일 오후 6시30분 부산 부산진구 초읍동 성지곡수원지 '환상의 코스'에서 펼쳐졌다. 이날 달리기에는 박상훈 회장을 비롯, 이형복(경기기사) 백민호 장기남(부인 동반) 최경룡 조봉관 김종순 동문 등 8명이 15km 호수 가를 4바퀴나 달렸다.

바다·계곡서 여름수련회 만끽

제16회 송정해변캠프

제16회동기회는 지난 8월 1~4일까지 3박4일 일정으로 부산 송정해수욕장에서 2003여름캠프(1984년 이래 20회째 행사)를 열고 우정을 활짝 꽃피웠다. 이번 행사는 당초 2박3일 일정이었으나 워낙 즐거워서 하루를 연장했다. 동기회(회장 정영일)가 주최하고 여름캠프단(단장 변용현)이 주관한 이번 행사에는 부산에서 50여명, 서울(송태남 회장)과 신은조 총무를 비롯해 변중휴 이규방

박상우 옥시영 천 경 박영호 이상재 동문 및 부인들)·일양(변수일 동문)·마산(최현우 동문) 등지에서 20여 명 등 모두 70여명이 참석했다. 행사 첫 날 저녁 단골숙식집인 '도가집'에서 열린 전야제는 싱싱한 생선튀김거리들과 푸짐한 해산물로 차려진 잔치상을 두고 축배와 정담과 노래자랑 등으로 열정을 한껏 발산했다. 이날 인기상은 서울의 부인 3명(남편 송태남·박상우·옥시영)이 싹쓸이(?)했다.



무주구천동 여름캠프에서 포즈를 취한 제25회 용마가족들

제30회 지리산서 우정 심어

제30회동기회는 지난 8월 23~24일 이틀간 지리산 계곡에서 2003여름캠프를 펼쳤다. 김병기 회장이 주재한 이번 행사에는 오랜만에 얼굴을 보여준 마창수 손승락, 전주에서 달려온 이영석, 미국 유학에서 돌아온 송찬식 동문 등 40여명과 부인·자녀 20여명 등 모두 60여명이 참석했다. 첫 날인 23일 오후 5시경 숙박지에 도착한 일행은 여장을 푼 후 청량한 개울에서 물장구를 치는 등 늦여름의 정취를 한껏 즐긴 후 저녁 7시부터 벌어진 전야제를 연출했다.

임규영 동문이 특별주방장(?)으로 선임돼 일찍부터 잘 피워둔 숯불에다 흑돼지와 메기를 구워 실컷 먹고 마시고 노래했다. 다음날 아침 6시경 일어난 일행은 임규영 동문이 준비한 도시락을 하나씩 들고 산행을 시작, 6시간 걸쳐 거림~세석평원~백무동으로 내려왔다. 이날 오후 1시30분 토종·닭백숙으로 점심식사를 한 후 부산으로 향한 일행은 저녁 7시경 시민회관 앞에 도착, 해단했다. 유영진 동문은 멋진 모자 30여개를, 이영석 동문은 대나무 참숯 배개 등을, 시종 맛있는 음식과 편안한 잠자리를 제공해준 임규영 동문에게 감사를 드린다.



송정해변 캠프에서 제16회 동문들이 바둑 등으로 피서를 즐기고 있다.

제25회 무주구천동 피서

제25회동기회는 지난 8월 23~24일 이틀간 전북 무주구천동에서 용마가족 여름캠프를 열었다. 김종현 부산·진인태 서울 회장이 공동주재한 이번 행사에는 전국에서 동문·가족 70여명이 참석했다. 전야제는 김종현 회장이 "오늘 같은 전국모임을 연례화하고 이의 활성화를 위해 앞장서 기여하겠다"는 인사말에 이어 돼지바베큐와 조광제 동문이 쾌척한 100만원 상당의 술이 절묘한 조화를 이룬 가운데 열기를 더해 나갔다.

다음날 이른 아침에는 전날 숙취로 낙오(?)된 일부를 남겨둔 채 30여명은 덕유산 등산을, 20여명은 계곡의 아름다운 풍광을 관광했다. 일행은 점심식사를 통해 다시 건강과 행운을 비는 축배를 들며 우정을 재확인했다. 이번 행사에는 국회의원인 박중웅 동문과 강수명 장군이 참석해 뜻이 깊었고, 국회의원인 서범수 동문 등 부득히 참석하지 못한 여러 동문들이 특전금을 지원해 넉넉하고 즐거운 행사가 되었다.



제30회 동문들이 지리산 계곡의 얼얼물 같은 개울에서 물장구를 치며 더위를 쫓고 있다.

제 24회동기회 임원명단

고 문

김경남 김명배 박경재 박홍규 서보호 서정대 송유돈 안 일 여철우 유금준 이병훈 임민호 정명환 최중식 한승철 한예식

본부 부회장

김경남

본부 이사

문취영 여철우 정영환 태창업 한승철

동기회 회장 태창업

수석 부회장 정영환

부회장

강동우 구자웅 공성철 김규철 노상우 문취영 백산홍 안상수 류홍석 이재성 이창무 임철호 정연우 정영석 정태운 최승국 최우림 최원주 최태영 하재갑

이 사

강성철 권상철 권영달 김경호

김도현 김무성 김성권 김영식 김인구 김정권 김청천 김학주 김현덕 문섭제 박요한 박재선 박창호 박해성 배상욱 손성호 손세영 송순철 안형수 양무도 양인석 원동희 원희광 유동욱 여성근 이방우 이한선 임병용 임연수 장민재 장한중 장현동 전문식 전상헌 전우열 정기춘 조영태 주승환 주점권 최동우 황규선 황두경

감 사 김인철

총 무 박태진

<지역동기회>

서울동기회 회장 변정규 마산·창원동기회 회장 김태홍 울산동기회 회장 김현태

<직능회>

24골프회(골프) 회장 여철우 후라회(야구) 회장 장민재 산우에(등산) 회장 한예식 이사들회(바둑) 회장 김인철

부부동반 동학사 일대 가을관광 나들이

제8회 동기회

산우회 수락산 등 차레로 올라 재경경팔회는 9월30일 충남 계룡산 자락의 동학사 계곡관광과 온천욕을 곁들인 가을야회를 부부동반으로 여는 등 9월 중에도 각 친목회별 행사를 알뜰히 열어 화합과 결속을 다졌다.

산우회(회장 김영철)는 지난 9월27일 수락산에 올라 노익장을 과시했다. 회원들은 앞서 20일에는 도봉산, 13일에는 관악산, 6일에는 수락산에 등산을 했다. 한편 지난 8월에는 4주간을 내리쉬다가 30일 도봉산에 올라 심신을 단련했다.

골프 우승 조윤제·문경희

골프모임 잔디회(회장 배주원)는 지난 9월4일 안성C.C.에서 24명이 참가한 가운데 제123차 월례회를 열었다.

남자부는 우승 조윤제(85타·-5)·준우승 김태규·3등 홍기성·니어리스트상 전영배·행운상 정진수 동문이, 여자부는 우승 문경희(96타·+2)·준우승 권정옥·니어리스트상 유문자·행운상 이정자 씨 차지.



바둑 우승 이중수 차지

바둑모임 팔선회(회장 이유환)는 지난 9월6일 오후 1시30분부터 한일기원(서울 지하철 2호선 1번 출구에서 50m 거리)에서 정례회를 열었다.

배주원 이유환 윤태영 이창근 신현주 이중수(우승) 전영배(준우승) 김진석 강성태 동문(도착순) 등 9명이 참석, 기량을 겨뤘다.

제10회 동기회

골프 8월대회 우승 윤재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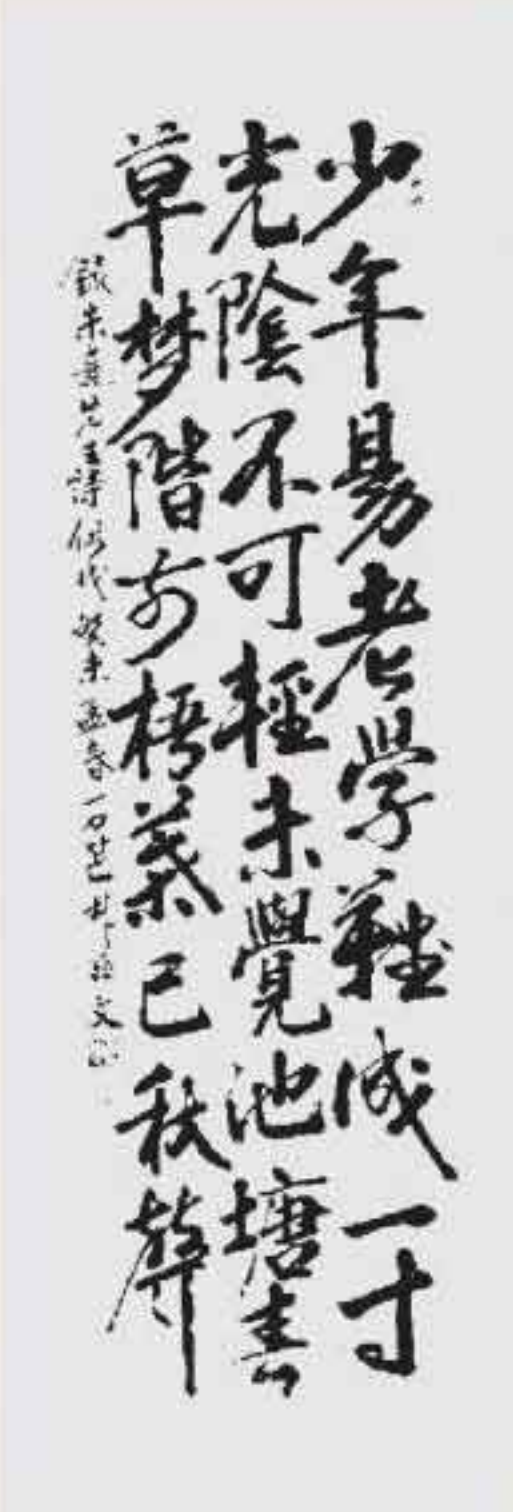
경원회 9월 수업시간표에 따르면 경북 회(회장 이정배)는 29일 정오 자유C.C.에서 골프대회를 열었다.

한편 8월28일 열린 대회에서는 우승 윤재모·메달리스트 이정배·준우승 신광석·3위 안우만·통기스트 한운구·니어리스트 김연수·행운상 이승락 동문이 차지했다. 특히 7월 우승자인 김영덕 동문이 특전금을 내보 큰 박수를 받았다.

가을 정취 숲잔에 띄우고...

강남회(회장 성 은)는 23일 정오 서초갈비촌에서, 정우회(회장 박철민)는 19일 오전 10시 과천 관문테니스장에서, 여의도회(회장 최원해)는 16일 정오 대청마루에서 각각 만나 회포를 풀었다.

사니조아(회장 이계창)는 14일에 청계산



과 앞서 6일에 북한산을 올랐고, 동수회(회장 김영복)는 13일 오후 1시 서초기원에서, 안산회(회장 박철민)는 9일 안산 중앙역 다릿목추어탕집에서, 강북회(회장 이호술)는 2일 정오 중앙극장 앞 평래옥에서 각각 만나 우정을 심었다.

서예가 박중문 韓中展 출품

부산에서 서예가로 활동하고 있는 박중문 동문은 지난 9월3일부터 중국 낙양에서 열린 '2003 한중 우수작가 선발교류전'에 참여, 주 회(朱熹)선생의 시(시진)를 출품했다.

공대 나와 화가로 변신한 박우상 첫 개인전 화제



공대출신 박우상 동문이 화가로 변신, 첫 개인전에서 선보인 작품 중 <환희>(45.5x60.1(12P) 2001)

제32회 동기회

공대를 나와 화가로 변신한 박우상 동문이 지난 9월2~7일 경남 창원 성산아트홀 제5전시실에서 첫 개인전을 열어 화제를 모았다.

무학화가협회 회원인 박 동문은 이번 전시회에 <환희 (45.5x60.6-12P·2001)>

제15회 동기회

보신탄파티로 심신 보강

일오산우회(회장 김종광) 제209차 산행대회(대장 최원수 총무)가 지난 8월17일 금정산에서 13명이 참석한 가운데 열렸고, 이화회(회장 강부남)는 같은 달 12일 오후 7시 미락정에서 정례회(6명 보신탄파티)를, 기림회(회장 이정부)는 같은 달 11일 오후 7시 장전동 점촌네집에서 7명이 참석한 가운데 영양탕 정례회를 각각 열었다.

1박2일 코스 시골 관광기로

사하회(회장 권승부)는 지난 7월 22일 오후 7시 동백식당에서 16명이 참석한 가운데 제50차 정례회를 개최(9월 모임은 1박2일 일정으로 시골관광을 하기로 결정)했고, 의약회(회장 김종광)는 같은 달 15일 오후 7시 서면 한계령에서 8명이 모여 영양탕으로 몸보신을 했으며, 화친회(회장 임병철)는 같은 달 8일 오후 7시 일식집 소도에서 14명이 모인 가운데 제135차 정례회를 열었다.

창원에서 원정 월례회 개최

삼팔회(회장 허두영)는 같은 달 8일 오후 7시 한정식집 송원에서 부부동반 12명이 모여 제54차 정례회를 열었고, 삼오회(회장 손부홍)는 계획대로 같은 달 5일 1박2일 일정으로 창원에서 정례회를 개최했다.

창원의 김용세 동문이 초청한 이번 모임에는 정희원 7명과 권영길 민노당 대표, 대구의 김중환, 창원의 김용세 김영환 이준, 김해의 김용남, 서울의 정 총 동문 등 7명이 게스트로 참석했다. 첫날은 창원의 유림정에서, 뒷날 단합회는 장유문천을 거점으로 각각 열렸다.

한여름밤 환상의 생음악에 취하고... 제31회 경부합동산행 주왕산서



제31회 경부동문들이 주왕산 정상에서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제31회동기회 경부 용마가족들이 지난해 서울 북한산에서 첫 합동산행대회를 개최한 데 이어 올해 두 번째로 경북 청송의 주왕산을 오르고 한여름밤의 야외축제를 연출했다.

지난 8월23일 오후 7시 주왕산관광호텔(대표 정용재 동문) 대연회실. 부산·서울·대구 등지에서 모여든 37명이 전야제 개막에 앞서 저녁식사를 하느라 시골벽적하다.

부산에서 박종규 합동산행준비위원장을 비롯한 김성규 총무·남기태 산행대장·최동식 홍보부장 등 동문 19명과 가족 8명(부인 5명·자녀 3명), 서울에서 김대식 회장과 조정제 청계포럼 회장 등 7명, 대구에서 김중호 정경호 동문 등 2명, 경북 대표인(?)인 이 호텔 정용재 동문 등이 참

석했다.

일행은 제1부 전야제의 막이 열리자 달기악수로 달인 토종담에 소주 맥주를 들이켜며 정담을 주고받았고, 밤 9시경에는 야외에 마련된 한여름밤의 축제에 모여 환상의 생음악이 흐르는 가운데 폭탄주(정철수 동문 양주 협찬) 세례에 흠뻑 젖었다.

대구의 김중호 동문이 손수 달여온 숙취해소 및 산행용 보약 1봉지씩을 마셨기에 '주담'들은 다소 견뎌낼 수 있었다.

다음날 오전 9시30분경 절골매표소를 출발한 일행은 신술골~대문다리~기메봉~내원동~제3폭포~제2폭포~제1폭포~대전사로 내려오는 장장 7시간의 산행을 이겨내고 온천욕으로 피로를 푼 후 오후 7시 서로 길잡이를 찾아 석벽의 정을 나눴다.



사상초유 '특강'에 놀라 제27회, 기별야구 우승 결의

제27회동기회는 지난 8월 28일 오후 7시 부산 부산진구 범천동 제일뷔페에서 정례회를 열었다. 조용수 회장이 주재한 모임에는 수년 만에 얼굴을 내민 김호균 동문과 힘든 나들이를 한 이명우 임용한 장인철 동문 등 27명이 참석했다(사진).

일행은 김태주 총무의 6~8월 중에 있었던 김홍사 등에 대한 보고에 이어 동기회 사상 초유의 '수업'으로 회자된 김양화

부산대 교수의 '정치·경제의 세계사적 흐름과 한국의 진로'라는 주제의 특강을 경청했다. 모두들 놀란 기색이었고 "마치고 시험 치니까?(이판세)" 등 질문(?)도 터져 나왔다.

동기회는 여러 동문들의 제의에 따라 매월 열리는 정례회 때마다 탈모대책·오십견·임플란트·성기능장애 등 현안 테마들에 대한 특강을 구상할 계획이다.

이날 모임은 오는 10월에 열리는 기별야구대회와 경부합동마라톤대회서 많은 동문과 가족들이 참석할 것을 다짐했다.

인도네시아

장길성(17회)=8월초 입국하여 8월25일까지 체류, 0811-863-646 김영택(25회)=자택은 사무실 옆 SEMANGGI에 있는 PARK ROYAL APT. #1152. (전화)570-2048 (핸드폰)0811-843-202 (사무실)571-3700. E-mail : ytkim@cbn.net.id

이석호(25회)=(주택이사)자카르타 디자인센터 옆 Semangi Apt. no. 2306. 휴대폰 0816-793-570 임종근(25회)=신용도(27회)

이봉훈(28회) 동문과 RADIO DALAM팀이 준비해오던 UV CLEANER(자외선 생수 살균기)와 정수용 대나무 통솔이 9월1일부터 시판. 한국의 KMI사

(대표이사 우경옥·25회) 제품으로 한국내수 및 유럽, 미주에 수출하던 제품을 동남아시아의 시장개척을 목적으로 우선 인니 한인사회에 K-TV, 교민잡지(벼룩시장, 한올)를 통해 광고와 함께 판매하고 있음(1대당 시판가격은 Rp.690,000) 김용덕(28회)=E-mail : ydkim@cgtglobal.com 김재훈(41회)=STAR WIN. 0811-847-106

제5회 尙基中=충무치과의원 원장. (주택이사)부산 남구 용호동 176-8 LG메트로시티 209동 1403호. 051-612-5828

어디서 무엇을

제6회 李仁雨=9월13일 병환으로 별세 文軒淳=(주택이사)부산 해운대구 좌동 1307 대원아파트 104동 403호. 051-701-8783 成二慶=(주택이사)부산 사하구 하당동 1176 가락3단지 318동 202호. 051-203-5373

제7회 權吉純=7월 5일 지병으로 별세 朴永喆=8월 4일 모친 별세

제8회 李熙淳=8월 29일 모친 별세 金榮煥=(주택이사)경기 성남시 분당구 정자동 11 아이파크 302동 2205호. 031-714-7149 地昌壽=(주택이사)서울 용산구 이촌동 430 LG한강자이아파트 110동 2201호. 02-796-6699 崔東禧=(전화변경)016-894-4255 金珍奭=8월 29일 명동성당에서 딸 정미양 결혼 李鍾洙=7월 28일 부인 별세

제9회 朴光植=6월 22일 모친 별세 金聖鎬=(주택이사)경기 용인시 수지구 성북동 726 LG빌리지 3

차아파트 303동 801호. 031-266-7572 辛宜浩=7월 26일 롯데호텔 크리 스탈볼룸에서 딸 리아양 결혼 성민태=7월 1일 모친 별세 李先浩=(주택이사)경기 의정부시 신곡동 724-2 현대아파트 205동 602호. 031-855-7320 鄭三東=(주택이사)부산 해운대구 반여1동 아시아선수촌아파트 108동 1404호. 051-521-3226

제10회 全秉稷=(주택이사)경남 양산시 웅상읍 소주리 장백아파트 123동 403호. 055-363-6615 金林奎=부산 수영구 광안2동 161-35. 051-753-5518

<7면에 계속>

봉황대기 우승 환영회 대성황... 그날의 감격·열광 재현

성황을 이룬 봉황대기 우승 환영회. 박동열 본부회장이 선수·교직원·학부모·용마가족 앞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선수·교직원·학부모 동문 등 350여명 자축

지난 9월22일 오후 6시50분 부산 코모도호텔 총무홀에서 열린 본부동창회 주최 '경남고 봉황대기 전국고교야구 우승 환영회'는 350여 명의 용마가족들이 참석한 가운데 그날의 감격과 열광을 그대로 되살렸다.

박동열 본부회장(8회)이 주재한 이날 환영회는 경남고에서 주인공인 야구선수단을 비롯한 권명미 교장 및 교직원·선수 학부모회 최재관 회장 등 부모들, 경남중에서 김철곤 교장(16회)을 비롯한 최성수 교감·옥창수 야구부장·노재완 감독 및 나대현 코치·야구선수들·선수학부모회 허성 회장과 이해동 총무 등

개회에 앞서 CVD로 촬영된 서울 동대문야구장의 재학생 응원 물결·우승장면·우승기 수여·감독 등 행가례·운동장 돌며 야구팬들에게 드리는 인사 등 주요 장면들을 상영해 분위기를 고조시켰다.

야구부장·감독·코치 격려금

박동열 회장은 내빈 소개가 있는 후 경남고 박도환 야구부장·이종운 감독(39회)·전광열(44회)-김태석 두 코치에게 각각 격려금과 꽃다발을, 김태곤 주장·대회 MVP 김상록 투수·팀의 키 플레이어이자 호투준족으로



원단 간식비 등 1천 200여만원을 성원하는 등 모두 5천여만원이 선수 뒷바라지에 쓰여졌다.

전국서 5천여만원 성원

박동열 회장은 인사말을 통해 "대회 5년 만에 대망의 봉황대기를 쟁취, 통산 2관왕의 영광을 우리 국내의 용마가족들에게 선물하고 모교와 동창회의 명예를 더한층 선양한 선수들의 투혼을 치하한다"며 "그동안 어려운 여건을 극복하고 기적을 낳는 데 크게 기여한 야구부장 선생님과 감독·코치, 물심양면으로 뒷바라지해 온 학부모님들, 올바르게 지도하신 교직원 여러분들, 뜨거

운 성원을 보내준 전국의 용마가족 여러분들에게 깊은 감사의 뜻을 드린다"고 말했다.

권명미 경남고 교장은 인사말을 통해 "부임과 함께 경사를 맞게 돼 개인적으로 기쁘기 한량없지만 한편 모든 교직원들에게 학생 지도를 더욱 잘하라는 무거운 소명을 받은 것으로 느꼈다"며 "경남고를 저의 모교로 생각하면서 재임 중 인성계발과 학력증진, 교육환경 개선 등에 심혈을 쏟겠다"고 말했다.

학부모들에 위로의 박수

김경희 재경고문은 축사를 통해 "우리 경남고 야구선수들은

선배들이 그러했듯이 공부 잘하고 좋은 친구들을 두루 사귀며 교양과 상식을 쌓을 책들을 많이 읽어야 한다"며 "좋은 친구들을 사귀기 위해 야구에 관한 이야기보다 다른 일반적인 이야기를 많이 나누는 연습에 충실하라"고 당부했다.

김 고문은 축사에 앞서 그간 불철주야 고생한 학부모들의 노고를 장내에 상기시키고 학부모님들을 일어서게 한 후 뜨거운 위안의 박수를 받게 했다.

환영회는 축하케이크 커팅·축배에 이어 만찬을 했고, 제35회 기별야구대회 대진표 추첨을 한 후 오후 9시25분경 폐회했다.



박동열 본부회장(오른쪽)으로부터 꽃다발을 받은 김태곤·김상록·김동현(왼쪽부터) 선수들이 포즈를 취하고 있다.

170여 명이 특별초대되었다.

우승기 입장에 감동의 박수

동창회에서는 류영렬(3회) 우명수(5회) 정소영(6회) 조대제 본부고문(7회), 김경희 재경고문(9회)과 박호문 사무국장(15회), 정행권 수석부회장(9회)을 비롯한 본부 부회장 감사 이사, 각 동기기회장 및 총무, 직능회장 등 180여 명이 참석했다.

특히 국회의원인 김병호(15회) 동문 등이 축전을, 최정림 진주 지역회장(21회) 등이 화환을 보내 행사를 더욱 빛내주었다.

김형석(16회) 본부 홍보이사 겸 사무국장의 사회로 진행된 환영회는 개회선언에 이어 우승기가 입장할 때 박수갈채와 함께 감동속에 문혔다.

평가받은 김동현(최다도루상-6개)군 등에게도 각각 꽃다발을 전달했다.

이어 정행권 수석부회장이 금일봉을 격려금으로 쾌척한다고 밝혔고, 박호문 재경동창회 사무국장이 대회 때 모금한 성금 중 집행한 후 남은 310여만원을 권명미 경남고 교장에게 전달했다. 한편 제15회동기회는 최근 격려금 100만원을 학교에 전달했다.

이번 봉황대기 우승에 즈음해 본부동창회는 대회출전지원금 및 우승 축하 신문광고비·우승 격려금·환영회 등에 2천100여만원을 지원했고, 재경동창회는 선수 숙식비 등 1천700만원을 모금했으며, 이종운 감독을 배출한 제39회동기회를 비롯해 여러 동기기회 등에서 격려금·선수숙식비·강훈비·선수용 야구백·응

본부, 수재의연금 기탁

박동열 회장 100만원 포함 200만원 제31회동기회는 100만원 부산MBC에

특히 이날 박동열 본부회장은 이종운 감독 등에게 격려금을 전달한 후 "본부동창도 대풍 '메미'의 강타로 고통을 겪고 있는 용마가족들을 비롯한 수많은 수재민들을 위한 의연금모금운동에 동참, 200만원(박 회장 개인 100만원 포함)을 금명간 언론사에 기탁할 것"이라며 "제31회동기회는 손태영 회장이 앞장서 모금, 100만원을 최근 부산문화방송에 기탁했다"고 밝혔다.

사랑은 나누면 나눌수록 커지고 불행은 나누면 나눌수록 작

아지면서 희망을 쌓게 된다고 강조한 박 회장은 "수많은 우리 동문들도 경향 각지에서 알게 모르게 의연금을 기탁하고 있는 줄 안다"며 "이 같은 뜨거운 온정의 물결이 우리 용마가족들의 가슴마다 일렁거리 수재민들이 하루속히 재기할 수 있게끔 하자"고 말해 큰 호응의 박수를 받았다.

올 시즌 '우승행진' 경남중 대통령기 전국야구 준우승

올해 시즌 우승행진을 했던 경

남중(교장 김철곤·16회·감독 노재완)이 지난 9월7일 부산 구덕야구장에서 열린 제33회 대통령기 전국중학야구대회 결승전에서 대구·경북중에 1-7로 무너져 사상 첫 대회 우승 꿈을 이루지 못하고 아쉽게 준우승에 머물렀다.

이날 경남중은 뜻밖의 투수 난조에 말려 10안타를 맞고 승기를 놓쳐 지난 99년에 이어 두 번째 준우승을 차지했다.

경남중은 지난 8월31일 플레이볼 이래 봉천 이수중에 11-4 청주중에 3-1(16강전), 창원 신원중에 12-3(8강전), 광주 동성중에 9-3(준결승전)으로 이겨 우승 0순위로 떠올라 전국적인 관심을 불러일으켰다.

GOLF · 콘도 · 헬스 회원권 매매

보라 · RAON · 아시아드 · 에덴벨리 · 정산 · 진주 애운대C.C VIP 회원모집!! 매매전문(분양주관사) GOLF SET 도소매 중고채 고가매매 · 부킹전화기 판매 최첨단 자동 센서음향 방송기기 설치전문 魔法의 DRIVER · IRON KATANA 한국총판

서면GOLF : 부산시 진구 부전2동 524-13(서면 공작창터널입구) 전화:(051)803-0654~5, 804-1811, 805-0707 807-0707, 817-0606~8, 819-0606, 819-0707 080-201-7777, FAX:804-1810

H P:011-854-0707 대표 여성 열(17회) http://www.smgolf.net E-mail:seomyengolf@hanmail.net

총무GOLF : 서구 총무동1가 10번지(총무동교차로 지하철입구) 전화:(051)241-4344~5, 254-0707, FAX:241-6643

남에게 드리는 기도

새벽에는 깨어있게 하소서 내 사랑하는 남편과 아이들의 가벼운 출발을 위하여 준비하는 여인이 되게 하소서. 내 말은 일에 충실할 수 있는 집중과 내 하는 일에 최고가 될 수 있는 지혜를 주소서. 오후에는 부지런하게 하소서 한 사람이라도 더 만나서 그 사람들에게 좀 더 소중한 사람이 되게 하소서 별이 빛나는 밤이면 홀로 기도하게 하소서 오늘 하루를 돌이켜 보며 내 사랑하는 사람들의 행복과 새로운 내일을 위하여...

공인중개사 사무소
여기번호 가-05-2251

대원부동산

전화 : 816-7799 팩스 : 816-7717
서면R 부산은행옆(초읍방향)

대표 손원조(21회)
권오균(21회)

부산/경남지역 상가, 토지, 건물
(매매/임대/교환)